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자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다. 아마도 요셉과 약혼한 후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냈을 마리아에게 잉태라는 소식은 청천벽력 과도 같은 놀랄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천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을 알려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에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것이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성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성자(아들)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고”, 동시에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시다(필리 2,6-7 참조). 즉 예수 그리스도는 ① 하느님의 아들이자 온전한 신성(神性)을 갖고, 동시에 ②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성(人性)을 가지신 분이시며, 인성을 받아들여시기 위해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단지 하느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우연히 선택된 것일까? 왜 하느님께서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비록 마리아의 신앙과 삶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처녀로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지막 응답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를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하며, “믿음의 순종”

으로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마리아께서 “신뢰로 주님께 구원을 바라고 받는 주님의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빼어난 분” (교회헌장, 55항)이셨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도” (가톨릭교회교리서, 490항)되신 분이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하느님께 이용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신” (교회헌장, 56항)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성모 마리아의 신앙과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5년 9월6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종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울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김말가리따의 영혼을 위하여	바울라	생	김정애 헬레나와 김채홍 어거스틴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전 울리안나
연			생		
연			생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9월 15일(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3,670.00 \$ 858.00
9월 16일(수)	고르벨리오 교황과 성치프리야노 주교순교자 기념일	오전 7 : 30	토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74.00 \$ -
9월 17일(목)	연중 제24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345.00 \$ 345.00
9월 18일(금)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mission appeal)	\$ 286.00 \$ 100.00
9월 19일(토)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오전 10: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100.00 \$ 5,778.00
9월 20일(일)	김대건 안드레아사제와 성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9 이복임 1~10월 최순범 4월~8월 임채봉 4월 석홍기 5~9월 최범진 8월 신영후 9월 윤재경 김계숙 김채홍 구준모 김광희 이서향 안병훈 최이주 남필레 전정옥 김숙자 엄정식 백정심 전기레 박용호 안선미 장신자 박정희 엄용덕 김영숙 9~10월 최준규 9월 남필레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승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50장 5-9 제2독서 야고보 2:14-18 복음 마르코 8:27-35

화답송

화답송: 시편 116(114), 1-2, 3-4, 5-6, 8-9(◎ 9)



나는주님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행동하는 신앙(요한 6,60-69)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할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2, 14-17)

오늘의 한국을 2030세대들은 지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현 사회를 ‘헬조선’ (hell+朝鮮)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대의 교육(입시)지옥, 20대의 취업지옥, 30대의 주거지옥.

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불려야만 할까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희망으로 살아야 할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정치인들,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재벌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행정가들, 희망을 주지 못하는 종교인들,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바꾸려고 실천하지 않는 시민들 등등 기성세대 모두의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불어 함께 살기를 노력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시절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지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나만 고통 받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를 꿈꾸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물질주의와 이기심에 빠져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갈가리 찢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두려움 못지않게 현실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해 온 죄 밖에 없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철탑에서 복직을 바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하늘만 바라고 살아온 농부는 어느 날 국가 시책이라는 이유로 그 정당성도 갖지 못한 터무니 없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평화로운 땅에 동네가 무서운 군사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가정을 위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일 해 왔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되어 자본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삶을 불법적으로 도청,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힘이 없는 이들은 사회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의 희망이 사라져 가는 이 나라,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이 나라, 탐욕과 이기심이 뒤덮여버린 이 나라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지사입니다.

이제 지옥 같은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탐욕과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 이기적인 자들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신앙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변화를 거부하고 탐욕과 교만,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모를 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갈망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2독서 야고보서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르 8,29)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마르 8,29)라고 대답합니다.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겪으실 운명과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추종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지방 호족들, 변화를 주저하는 이기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 34 참조)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타적인 삶 즉 타인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좁게는 주님의 이웃을 위한 실천이 이루어져야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탐욕 세력과의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 하느님 나라를 위해 기득권 세력에 맞섰고, 인간의 탐욕을 질타하셨음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송현동 본당 배인호 베드로 신부

장
종
지

한 마리 양

내 옆에

그리고 앞에 뒤에

그래도 보지 못하는

한 마리 양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본당의 날 행사 및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 일시 : 9월 27일(일) 11시 미사
- ◆ 본당의 날 행사는 민속놀이로 합니다.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고, 행사 도내이션도 부탁드립니다.
- ◆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이나 전례부장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프란치스코 교황님 미국 사목방문

-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를 사목방문하십니다.
- ◆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기도해 주세요

5.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6. 북가주 성령기초 목상회

- ◆ 10월 16일(금) 오후4시-18일(일) 오후 3시
- ◆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회비 :260불 선착순 :35명
- ◆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 신청 : 이순자요안나, 김은영폴리나

7. 기도해주세요!

- ◆ 우순이 알레나(3구역)의 사위 Brandon Joanston이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St. Mel's Catholic Church에서 16일(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8. 성서 백주간 새로이 시작합니다

- ◆ 첫모임 : 10월 6일(화) 미사후 데레사방
- ◆ 연락 : 이지연크리스티나 (916)500-3830

9.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1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	\$40,095.00

10. 감사합니다!

- ◆ 어르신 잔치를 위해 수고해주신 사회복지부와 사목임원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소화 데레사 보조 : 이윤상 김화연
- ◆ 다음주 점심봉사 : 구역장 보조 : 이호순 수산나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요안나(\$100)	\$63,23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3,560	262,038

지구 & 교구소식

회합 : 20일(일) 미사 후 성당

- ◆ Pr 간부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 ◆ 9월 19일(토) 레지오 단원 피정
- ◆ 장소 : 오글랜드 성당
- ◆ 강사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가톨릭 신문 사제일기 연재)
- ◆ 레지오 단원들과 관심있는 분들은 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 안내

- 사목회 : 9월 20일(일) 11시 미사 후 엘리사벳 방
- 성당골프회 정기토너먼트 : 9월13일(일) 오후1시30분 애플마운틴
- 울드레아 모임안내 16일(수) 저녁 7:45 성체조배후 엘리사벳방
- ◆ 10월 우리 본당에서 있을 전체 울드레아를 위한 예비모임.
- ◆ 많은 꾸리실리스타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 한글학교 학부모 총회-9월 13일(주일) 오전10시,
- ◆ 학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주일학교 개학 - 9월 20일(주일) 9시 미사
- ◆ 문의:김미경 아네스(530)906-0265 /오민정크리스티나(213)700-0051

전례 봉사	09월 13일	09월 20일	09월 27일	10월 4일
해 설	김은영 (폴리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해련 (데레사)	김은선 (제노베파)
1 독 서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상인 (시메온)	이주순 (올리오)	이윤상(사도요한)
2 독 서	김계숙 (효주 아네스)	유정임 (가브리엘)	김화선 (아네스)	이해련(데레사)
복 사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 마 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 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바오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기도/청소	3PC~4NH	3PC~4NH	3PC~4NH	5GF~6RC
헌금 위원	이나숙 정의주	송돈희 임상일	장석자 고원석	고공자 임그라시아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Exigo IT 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 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 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일날 성당에서도 도와드립니다 연 락: 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김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 상해보상, 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 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 CBSBadook)+ (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 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지나 ☎ (916) 362-0260</p>	<p>·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 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